

# 교육감 '로또 선거'서 '깜깜이 선거'로

### 투표 용지 기명 순서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달라

### 후보 알리기 어려워 신인들 출마 포기 잇따를 듯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로또 선거'에서 '깜깜이 선거'로 뒤바뀔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단체장·지방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조직)이 개입되지 않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투표용지마저 기명 순서가 동네마다 달라 후보 알리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부터 투표용지가 바뀐다. 그동안 추첨 순서대로 후보자 이름을 세로로 나열하던 방식에서 가로나열식으로 바뀌고, 순서도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다르게 표기된다.

만약, 광주시교육감 후보로 4명이 등록했다면, 광주 동구가 선거구는 투표용지에 '구·노·다·르'로 기재되고, 다음 선거구인 동구구는 '노·다·르·구'로 기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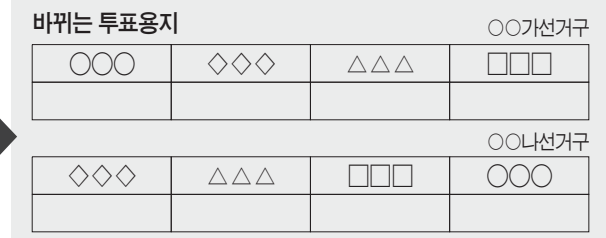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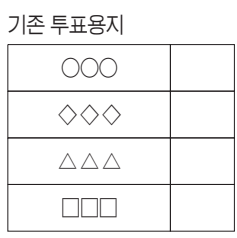
구·노·', 서구구는 '노·구·노·노' 식으로 번갈아가 기재된다. 광주는 동구(선거구 3개)를 시작으로 서구(4개)→남구(4개)→북구(8개)→광산구(6개) 순으로 순환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감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특정정당이 연상되는 투표용지 맨 위쪽이나 두 번째 순번이 당선되는 이른바 '로또 선거'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

그동안 교육감 후보자는 소속 정당이 없지만 유권자는 후보자 이름 배열 순서를 정당 순으로 착각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2번' 뽑은 후보자가 만세를 부를 정도로 영향이 컸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 수 편차가 가장 작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후보자 이름이 순환돼 기재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감선거는 기존 선거보다 공정성이 커지고 정적 예측하는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 모든 선거구 동일

※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후보 순서 다름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로또 교육감'은 없어지겠지만 교육감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1명당 7장의 투표용지(광역단체장·교육감·광역의원·광역의원비례·기초단체장·기초의원·기초의원비례)를 받아 투표해야 한다. 각 선거구 후보가 4명이 나온다면 유권자는 후보 28명의 이름과 정책 등을 알고 투표해야 한다. 사실상 교육감 후보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마 포기도 잇따를 전망이다. 신인들의 경우 '2번 로또'의 기회마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도교육감 출마에 뜻을 뒀던 한 인사는 "전남의 경우 지역이 넓어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데 반해 인지도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중에서 접어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광주의 한 입지자도 "개편된 교육감선거 방식은 오히려 더 엉터리다"며 "현직 교육감이나 정치인, 이름이 알려진 인사만이 교육감이 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비용 보전에만 그치는 게 아닌 공적 후보수단을 강구해야 제도 개편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깜깜이' 선거가 예고되면서 신인들의 출

마 포기도 잇따를 전망이다. 신인들의 경우



매니페스토 10대 정책 어젠다 선포식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 10대 정책 어젠다 선포식'이 24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강당에서 열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의제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흑산도 소나무 솔껍질깍지벌레 410ha 피해

### 전남도 합동정밀 조사키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신안 흑산도 소나무림에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전남도가 25일부터 전문가와 함께 합동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63년 고흥에서 첫 발생 이후, 1980년대 남서해안으로

퍼졌던 소나무 솔껍질깍지벌레가 최근 흑산도 내 410ha 가량에서 다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00ha에서는 소나무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흑산도 소나무림 보존을 위해 나무주사 228ha 및 피해복 별채사업 30ha를 중점 추진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간벌 등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제한적인 방

제 사업만 해왔다.

피해가 커지면서 도는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산림병해충 전문가와 신안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등 각 기관 전문

가 합동으로 25일부터 4일간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조사를 토대로 다음달 5일 대책회의를 갖고, 추가로 소요되는 방제 예산을 고려해 산림청에 긴급 방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상길 박사는 "흑산도는 소나무숲이 밀생돼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를 중복해서 받으면 저항력이 크게 떨어져 생육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사전에 강도간벌을 통해 수세를 회복한 후 나무주사를 실시해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매년 4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상 관광 명소다. 해송, 육송, 동백나무, 구실잣 밤나무 등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호남, 유권자수도 충청에 추월 당해

### 6·4지방선거 예상 집계

### 호남 417만명 충청 418만명

오는 6월 4일 치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호남권이 인구에 이어 유권자수에서도 충청권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정행정부는 "6·4 지방선거 예상 유권자수가 4112만6000명으로 지난 대선 당시 선거인수 4052만6767명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선거 예상 유권자수는 작년 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등록자 4100만1000명에 제외국민 7만7000명, 외국인 4만8000명을 더해 나온 것이다. 유권자수는 오는 5월 23일 최종 확정된다.

잠정 집계치를 보면 충청권의 유권자수가 호남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수도권과 충청권 유권자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418만9720명으로 호남권의 417만6795명을 근소한 차이로 역전할 전망이다. 지난 대선 때 호남권 유권자 수는 413만3455명으로 충청권의 410만8539명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49.5%, 영남권 26%, 호남권 10.2%, 충청권 10.2%, 강원·제주는 각각 4.2%로 지난 대선과 비교할 때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중이 각각 0.1%포인트씩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50대의 비중은 지난 대선 당시 19.2%보다 늘어난 19.5%다. 60대 이상도 20.8%에서 21.2%로 늘어난다. 이를 더하면 50대 이상 비중은 40.7%가 돼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의 40%와 비교할 때 0.7% 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지난 대선에서 50대 유권자의 투표율은 82.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광범했던 대선의 함배를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비중 증가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 보훈처, 부정적 여론 수렴 되풀이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과 관련, 부정적 여론 수렴으로 일관하는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훈처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 추진사항'을 보고하면서, 올 1월까지 관련부처와 보훈단체, 정책자문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보훈처의 이 같은 의견수렴 결과와 입장은 작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공론의 장을 거쳐야 함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보훈처는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보훈처의 행태는 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박승춘 보훈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들며 부르는 노래 ▲북한이 만든 영화 '남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 음악 ▲북한의 통일노래 10곡집에 수록된 노래 ▲작사자 등의 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노래 ▲가사어나오는 '임'과 '새날'에 논란이 있는 노래 ▲국가유공자 단체의 반대 ▲지정될 경우 다른 국문분열 현상 발생 등이었다.

이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보훈처의 이 같은 의견수렴 결과와 입장은 작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공론의 장을 거쳐야 함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보훈처는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보훈처의 행태는 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박승춘 보훈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시, 전병헌·김재운 의원에 명예시민증

### 수영대회 지원법 통과 기여

광주시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법이 마련되는 데 기여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김재운 의원 등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4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김재운 의원이 큰 역할을

한 만큼 명예광주시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이들 두 의원과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1~2명에게 명예광주시민증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2019 세계수영대회' 정부지원을 골자로 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은 민주당 120명, 새누리당 28명 등 국회의원 154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지경기자 lucky@

# 급 매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29P  
→ 매매가-5300만원(일시불)  
→ 문의, 010-4667-9300

## 경매투자

-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경매로 부동산을 싸게 사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물건에 '돈' 빌려 주실 분!  
법적보장 / 전화상담 사절!

# 사정상 "매매"

## 순천지방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P, 건물 480P, 5층 신축건물
- ▶ 감정가/시세-24억원
- ▶ 임 대-보증금 3억원에 월1,300만원 예상(임대중) 2층 프랜차이즈 커피숍 임대 완료 5층 골프연습장 임대 계약
- ▶ 대 출-14억원(이자 월550만원)
- ▶ 매매가-23억원, 이전비 없음
- ▶ 수 입-6억원 투자에 월750만원

주인직매 H, 010-4667-9300